

Sadaf, SM 180만톤으로 확장!

Al-Jubail 3차 컴플렉스 60만톤 추가 ... Shaw · ABB 프로세스 채용

Sabir 및 Shell Chemicals의 50대50 합자기업인 Saudi Petrochemical(Sadaf)은 2006-07년까지 사우디 Al Jubail에 3번째 Ethylbenzene-Styrene 컴플렉스를 건설할 계획이다. Styrene 생산능력은 60만톤이다.

이에 따라 Styrene 상업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Shell이 Sadaf를 대신해 앞으로 Styrene 30만톤을 시장에 판매하게 된다.

현재 Ethylbenzene-Styrene 컴플렉스는 기초 엔지니어링 작업에 들어갔으며 Shaw Group 및 ABB Lummus Global이 기술 제안서를 제출했다. 기술 라이선스 비용은 약 2억5000만-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.

Sadaf는 생산능력 총 120만톤에 달하는 2개 Styrene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먼저 건설된 플랜트는 현재 Sadaf의 일부인 Badger의 기술을 채용하고 있는 반면, 다른 플랜트는 Lummus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다.

Shell은 약 40만톤을 판매하고 있으며, Sadaf는 67만5000톤을 Sabir의 자회사 Petrokemya 및 사우디 수요기업들에게 공급하고 일부 Persian Gulf 지역에도 공급하고 있다.

Sadaf는 Styrene 원료공급을 위해 110만톤 크래커를 가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원료는 Petrokemya가 공급하고 있다.

그러나 Ethylbenzene-Styrene 플랜트 확장으로 인해 에탄(Ethane)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Sadaf는 현재 Sabir의 자회사 Ibn Rushd 및 다른 사우디 생산기업들로부터 벤젠(Benzene)을 공급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입하고 있다.

한편, 현재 Sadaf는 사우디의 유일한 Styrene 생산기업이나 ChevronPhillipsChemical이 2006-7년 완공을 목표로 Al Jubail에 75만톤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곧 상업판매에 나설 전망이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1/12>